고유가發 경제 위기감… 성장·물가·국제수지에 '비상등'

- 1,2차오일쇼크수준능가, 원화약세도得보다失로작용 -

지난해이후한국경제를둘러싼대외불안요인은크게두가지였다. 하나는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확산에 따른글로벌금융시장 불안이고, 다른하나는유가를비롯한원자재가격급등이었다.

글로벌신용위기는최근들어어느정도해소되는 모습이다. 미연준의공격적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신용 시장이 안정되고 주식 시장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부 비관적인 시각이 여전히 있지만 3월 베어스턴스구제를기점으로최악의국면은지났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원자재가격특히유가급등세는 시간이흘러도멈출 기미가보이지않고 있다. 국제 유가는 올 5월 21일 13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는데 이는 2001년과 비교할 때 무려 6배나 상승한 수치이다. 실질가격기준으로환산해보아도현유가는1, 2차오일쇼크당시수준을능가하는 것으로나타나고있다.

유가 200달러 도달 가능성 경고

올초만해도유가향방에대해서안정될 것이라는의견이다수였다. 중동정세불안, 달러 약세 등이 유가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선진국경기 둔화로원유수요는점차줄어들것으로전망되었다.

그러나,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초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비관론은 수요측면에서중국등신흥국 고성장에따른석유수요증대가상당기간지속된다는 예상을근거로 하고있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 인도,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수요 증가량은지난 2년간세계원유 수요 증가분의 83%에 달한다고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세계석유생산이최고점을지나감소단계에조만간진입할 것이라는 피크 오일(peak oil) 가설도재부상하고있다.

이와따라골드만삭스등일부전망기관은수급불균형및원유선물로의투기자금 유입이 지속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돌파하는 수퍼스파이크(super spike) 발생가능성까지경고하고있다.

소비자 물가 5%대 진입 초읽기

유가 급등에 따라 원유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경제가받는 충격은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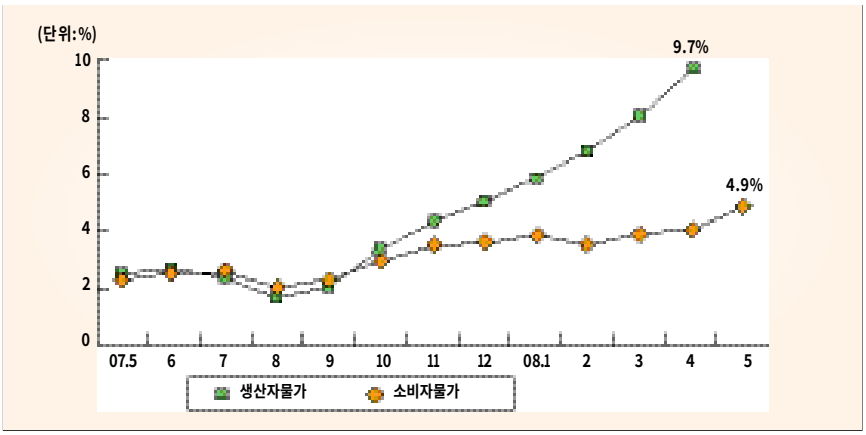
가장우려가되는부분은물가이다. 유가뿐아니라곡물을비롯한수입 원자재가격까지초강세를 보이고있기때문이다. 게다가 원화 환율마저 지난해보다 대폭 절하되어물가상승압력을가중시키고있다.

실제지난해2% 내외를유지하던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에는 4.9%까지 높아졌다.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높은수준이다. 실생활과밀접한품목위주로구성된생활물가는소비자 물가보다높은5.9%를기록하고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 효과도 점차 가시화될전망이다. 그동안중국제품이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 수입원자재중중국산비중이12%(2007년)에불과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진 발생, 위안화 절상추세지속에따라국내물가에미치는 영향력이계속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수입품 가격 상승은 원유처럼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파급되기도 하지만 곡물 등과 같이 추가적인 생산·유통 단계를 거치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추이



품목은 상당 기간 물가에 영향을 준다. 4월 생산자 물가가 10% 가까이 치솟은 상태여서 소비자물가는 조만간 5%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경상수지 적자 100억 달러 도달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경상수지 방어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경상수지 적자 누적규모는 6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둔화에도 불구하고 4월까지 원자재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0%(원유수입 60%)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1/3이 원유이다. 2분기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전망이며 하반기에 다소 개선된다고 하여도 연간으로 10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적자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경상수지가 중요한 이유는 외채 문제 때문이다. 특히, 단기외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단기외채는 2년 만에 무려 140%가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1,58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당장 외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외환 보유고가 2,6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외채 증가의 주원인인 조선업체 및 자산운용사들의 선물환매도는 만기도래 시 반대거래를 통해 자동해소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베트남, 아이슬란드, 동구권 등 최근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외채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만일 하반기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최근 채권시장에서 비중이 커진 외국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를 한꺼번에 매도할 경우 대외지급능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하반기, 경기 하락 속도 빨라질 듯

우리 경제는 1분기를 기점으로 하강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외형상 성장률은 5.8%에 달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0.8%에 불과해 지난해 4분기 1.6%와 비교하면 정확히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특히, 실질국민소득(GNI)은 전기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성장률은 더 낮은 상태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수의 급속한 위축이 우려된다. 1분기 성장 내역을 보면 내수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율이 각각 3.5%, 1.7%에 불과해 전체 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기업들도 원가 부담 증대에 따라 슬림형 경영이 불가피하고 투자 여력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유일하게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환경도 그리 밝지는 않다. 선진국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 시장 수요가 받쳐주면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증대되는 신흥시장 리스크, 유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상반기 같은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화 약세, 득보다 실 많아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3대 경제 지표에 모두 비상등이 켜진 만큼 정부의 정책 재량 여지는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대외 여건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제성장 보다는' 경제안정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가관리에 중점을 두어 인플레기대심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나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석유류와 생필품 관련 세제 완화 및 생필품 공급 애로 해소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물가 안정과 관련 환율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금융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출 증대를 위해 원화 약세를 지지한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기대감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야기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원화 약세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이다. 최근의 수출 호조세가 원화 약세에 따른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요 증대가 주원인이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할 때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보다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증대, 기업 원가 부담 증대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일 내수가 지나치게 침체할 경우 물가를 자극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감세, 금리 인하, 재정 지출 확대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야

수퍼 스파이크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국제유가 고공 행진은 불가피해 보인다.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를 덜 쓰는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원유수입을 10% 줄일 경우 연간 절약되는 비용은 무려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원 확보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자원 확보는 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적극적이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저유가 지속으로 1997 2002년 간 26개 유전사업을 매각했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정훈
포스코경제연구소 연구위원